

# 톡톡 튀는 신제품 총망라 '벤처나라' 아시나요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의 공급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창업·벤처기업들도 자신이 개발한 신제품·아이디어 상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벤처나라(venture.g2b.go.kr)는 기술과 품질이 우수해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나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 심사해 등록한다.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을 비교할 때 등록업체 수는 137개사에서 360개사로 2.6배, 등록상품 수는 380개에서 1701개로 4.5배 증가했다. 누적 공급실적은 9억1만원에서 84억 원으로 9.2배나 늘었다.

신제품을 개발한 창업·벤처기업들은 벤처나라에서 초기 실적을 쌓고 조달청의 전담 컨설팅을 받아 공공조달의 본선 무대를 할 수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한다.

K사의 교육용 3D 프린터, H사의 노인 응급돌보미서비스 등 8개사 45개 상품이 벤처나라 진입 후 공급실적과 제도 컨설팅으로 다수공급계약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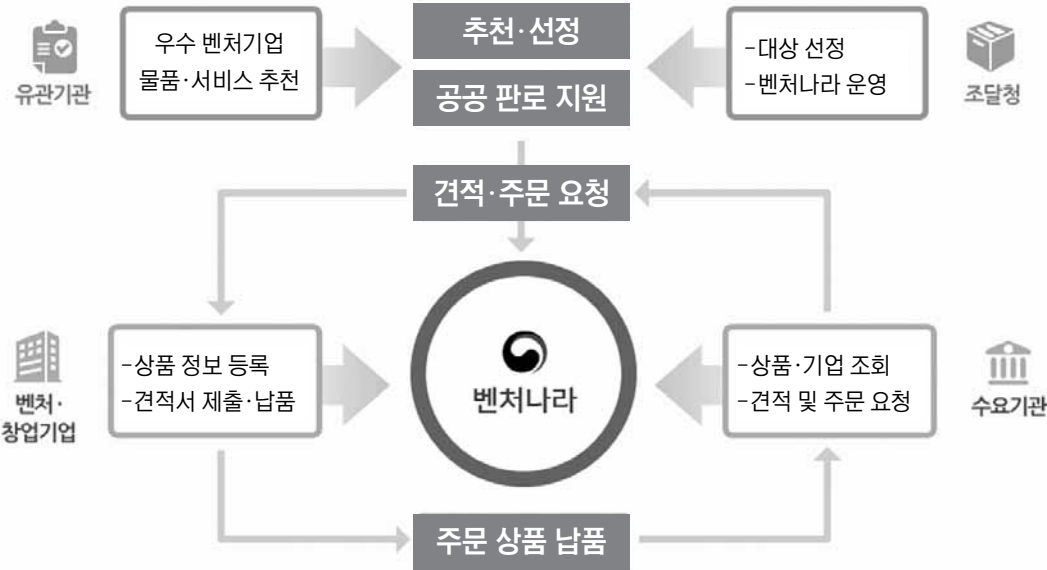
B사의 LED 비타민 전구, M사의 성능인 증 의자 등 6개사 201개 상품은 '조달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돼 수의계약으로 5만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공급실적 1년새 9배↑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

'벤처나라' 거래 절차 ▶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벤처나라 업체가 나타나며, 현재 13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는다.

D사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시계', A사의 미세먼지 집진장치, P사의 스마트 영상보행자감시기 등이 대표적으로 벤처나라 등록 후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해외 컨소시엄, 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벤

처나라의 기능과 편의성을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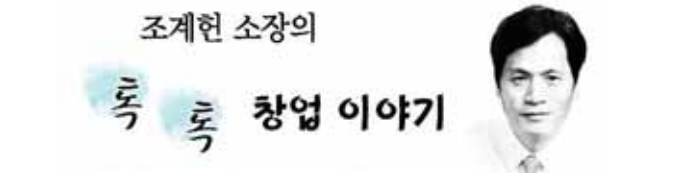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는 창업·벤처기업이 직접 자신의 제품을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수의계약 위주로 기능이 구성된 구매 프로세스에서 견적입찰공고, 중앙조달계약요청 등 상황에 맞는 거래방식을 원스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광역자치단체·중앙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이 지역·제도·환경의 제약 없이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벤처나라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 등록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화면에 우선 노출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오픈마켓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아이디어 상품이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국내외 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실버창업

백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의 생활활동 연령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불가피한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노후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또다시 경제활동의 인생 2막의 준비를 해야 하는 장수시대의 고충이 따른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향후 6070 장년층의 실버창업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창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버창업의 가장 큰 단점인 고객과의 직접 대면형 창업시 고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실버창업의 기준은 세워져야 한다.

실버창업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서 우월한 창업자금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직접 대면이 많지 않은 투자형 창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고객의 직접 대면을 필요로 하는 창업시에는 주요 고객층을 비슷한 연령대의 실버층을 상대로 하는 창업아이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 번째는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자신화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가족회사 등 공동체 형태의 창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투자형 창업의 주요 창업아이템들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원룸 건물, 상가 등의 수익형 임대사업 그리고 드라이브인 스타일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단독 건물형 중대형 외식업소 그리고 유통업이나 제조업 등의 고객과의 직접 접촉면이 적은 업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추세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 하는 점포형 창업시에 선호되는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비슷한 고객층을 상대하는 의료용 보조기기 전문점, 실버용품 전문점, 빨래방, 북카페, 서점, 독서실, 고시원, 전통음식전문점 등이 직접 운영을 위한 창업시 주요 선호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참고할 사항은 고객과의 직접 대면형 창업시 소규모가 아닌 중대형 이상의 규모로 창업할 때는 고객의 심리적인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전문 점장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점장 중심의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한 운영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물론 더 믿을 수 있는 자녀세대와의 가족창업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형태이기에 우선 추천하고 싶은 창업방식이다.

실버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단 본인의 건강관리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젊은 고객층을 상대하는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점장시스템의 도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고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실시간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서 점장 운영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실버창업 지원정책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지나치게 자기자본 위주의 창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자금의 활용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실버창업은 창업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인생의 마지막 모험이자 투자다. 그렇기에 자신의 노후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주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전략연구소장

## 알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늘었다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세대가 작은 소형 주택은 부동산 정보가 드물고 시세를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부동산 핀테크 회사인 빅밸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빅밸류는 주택실거래가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8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정보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로빅'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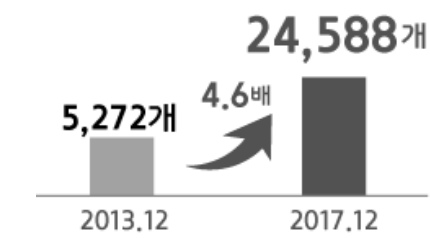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좋은 성과를 낸 창업성

공기업 33개의 우수사례를 10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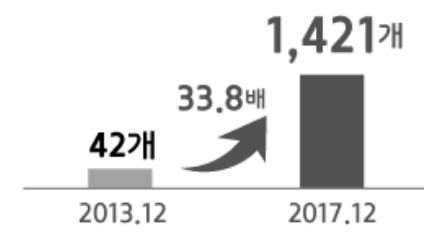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개방 공공데이터는 2013년 5272개에서 지난해에는 2만 4588개로 늘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2013년 42개에서 지난해에는 1421개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창업 성공사례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사례집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나 오픈데이터포럼(odf.or.kr) 등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 공공데이터 개방 개수



### ■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신보, 광주과기원 등 5개교와 산학협력

신용보증기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과 우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체결 대상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 5개교다.

신보는 이들 대학이 추천한 학내 우수 창업기업에 최고 60억원의 신용보증과 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5년간 보증료를 0.3% 포인트 깎아주고 보증비율은 90%로 우대 적용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황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 내 우수기술이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프랜차이즈박람회 정보 지하철서 확인하세요

25~27일 김대중센터

'2018 호남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 IN광주' 사무국은 10일 광주지하철을 활용해 호남 최대규모로 열리는 박람회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광주지하철 19개 역사 내부에 호남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이달 말까지 홍보한다. 또 같은 기간 열차 내부에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운영한다.

이번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10업체 230개 부스 등 호남권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호남지역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연계해 협업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람회를 관람은 홈페이지(www.좋은공간.kr)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전화(062-371-3511)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버스킹' 낭만 문화로 자리잡다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4월 개막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린 영화

5·18 기획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행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어즈 꽃미남 사이드업,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역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노중훈의 꿈의 여행 <운명적인 사랑과 맛있는 음식의 도시 미국 시애틀>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북 로맨스' 커플이 운영하는 영국 프림로즈힐 북스 & 커나한 북스>

### 에앙 초대석

『이순신의 7년』 완간한 작가 정찬주 "인간 이순신" 숨결 담았어요

문화 화제  
윤곽 드러낸 2018광주비엔날레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월북시인' 봉인 문 첫 문학관 오장환 문학관>

트렌드 따라잡기 <돌돌이 키워 볼래요? 진화하는 혼자 놀기>

지역의 문화 행사  
눈부신 전남의 5월 축제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지향과 선택 <소설가 권터 그라스 vs. 극작가 하이너 뮐러>

에앙수신부 공동 기획-한국의 국어여행 <소박함과 화려함의 남해안권 국가여행들>

전통, 역사와 마주하는 전남도시 <나주 羅州>

향포퓀에 타고 시간 여행 - 목사골 오일의 푸르름 속으로